

신용사회의 첨병

한국신용평가(주)

고급두뇌로 ‘소수정예화’

요즘 직장인의 지갑속을 들여다 보면 보통 2~3개의 카드가 있다. ‘카드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나고, 심지어는 1장의 카드로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종 카드까지 곧 나올 것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카드시대가 열린 것이다. 카드발급회사의 경우 카드 발급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은 개인의 신용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력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신용경제사회의 도래와 함께 평가전문업체의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신용평가(주) (대표 : 이현제).

1985년 2월 국내최초의 평가전문회사이자 종합 정보서비스회사로 문을 연 한국신용평가는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성, 충실했던 데 이터베이스, 질높은 서비스로 신용사회의 첨병 역할을 해내고 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성장성·안정성·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국내외에 홍



<서울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주). 국내최초의 공인평가기관으로 신뢰성 있고 질높은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

보함으로써 우량중소기업이나 중소전문업체들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아래 설립된 동사는 설립 4년 이 지난 현재 사업기반을 굳건히 하는 한편 사업영역 확장을 계속 꾀해나가고 있다.

신용사회를 선도해 나간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동사의 조직은 기업평가부·연구조사부·정보사업부·정보관리부·총무부 등 5개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총직원수는 80여명.

이들 각부서들은 사업별로 수평적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위원회제도와 공동과업 시스템 (TaskForce)을 통해 사업부문간·

상하게증간 의견조정 및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전 직원의 70%이상이 연구원이란 직함을 사용한다. 물론 업무추진을 위해 직책을 갖고는 있지만 이들 연구원들은 국내유수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금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충분히 실무경험을 쌓은 엘리트들로, 공인회계사·증권분석사·경영지도사·정보처리기술사 등의 자격소지자 만도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구

성은 각 개인개인의 마음속에 회사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보관리부 정병건 차장은, “저희 회사직원들은 대부분이 상당한 엘리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의식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일에 대한 궁지로 표출이 되지요”라고 설명한다. 그만큼 동사는 정규직원의 소수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보사업 확장에 주력

동사의 사업은 크게 신용평가 및 기업분석·종합 경영정보서

비스·연구/조사/출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신용평가 및 기업분석 사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의 주력사업이 될 부문은 정보서비스 사업일 것이라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보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는 시기상조이다. 이에 대해 정보관리부 정병건 차장은 “현재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보이용률이 예상치에 못미치지만,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된 사용자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품질·가치 등에 크게 만족한다”면서, 그러나 정보마인드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동사의 주

요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평가 및 기업분석

동사는 우수한 분석전문가, 풍부한 평가경험, 과학적 분석기법 등을 충동원하여 기업신용분석, 유가증권 등급평가, 기업가치산정, 사업성평가,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합경영정보서비스

종합 정보데이터뱅크와 전문연구원들의 심도깊은 분석정보를 온라인·인쇄물·마그네틱테이프 등을 통해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경영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동사가 구축한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는 기업정보·산업정보·신용정보·투자정보·경제통계정보·뉴스정보 등이 있으며, 이중 기업정보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한다.

또한 동사는 컴퓨터망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뿐 아니라 책자 및 인쇄물을 제작하여 관련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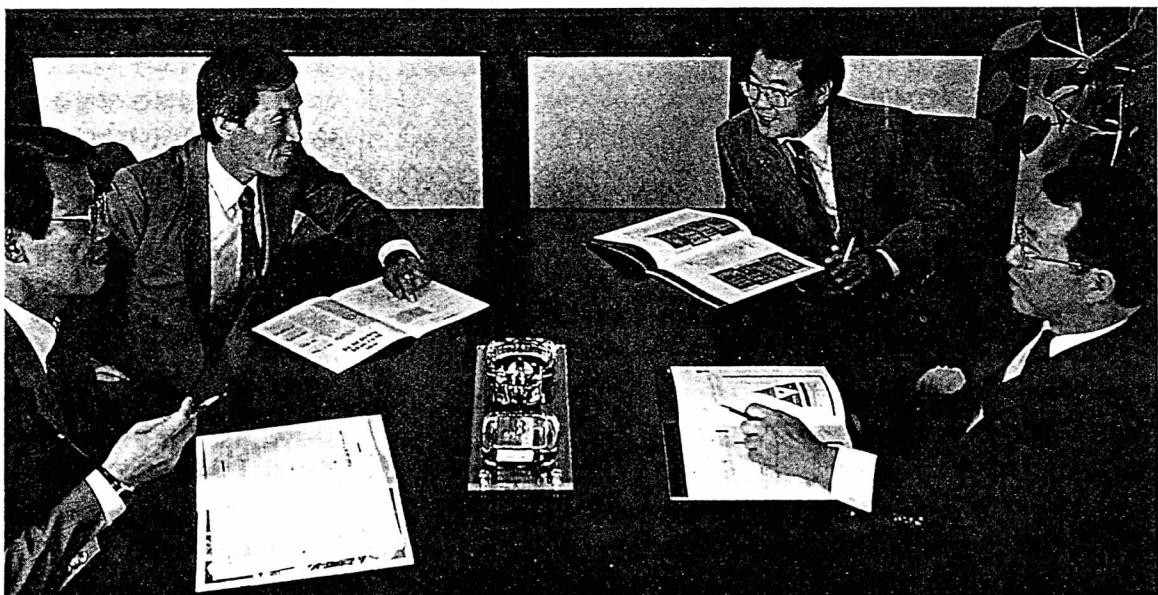
-연구·조사·출판

창의성과 현실감을 겸비하고 있는 민간두뇌집단(Think Tank)로서 동사는 결제·금융·산업·기업경영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출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출판분야에서는 「신평비지니스」라는 격주간지와 「신평저널」「신평경제전망」이란 계간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社)는 평가전문회사이면서 종합 정보서비스 회사로서는 국내 최초이자 최고

(수평적 조직체계 속에서 기능별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社)의 업무형태는 직원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내의 모든 업무추진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경영진들의 회의모습).



로 권위있는 전문회사로 그 기반을 굳히고 있다.

금년내로 2만여 기업정보 수록

동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축적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서비스 전문회사로의 발전에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동사는 완벽한 컴퓨터망을 구축 각종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림 참조).

동사가 구축한 컴퓨터망을 KIS-Line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IBM4361 2대를 메인시스템으로 하여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들어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 500가입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IBM4381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통신회선으로는 데이콤이 제

공하는 특정통신회선이나 DNS 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KIS-Line에 가입된 업체수는 65개업체.

주이용자는 금융기관 및 대기업체이며, 올해 말까지 100여 가입자로 늘어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은 수집단계를 거쳐 연구원들의 손에서 가공처리된 후 정보관리부에서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데

인 터 뷔

“정보의 필요성·유용성에 관한 인식제고가 관건”

“정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머잖아 도래할 정보화사회는 곧 신용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신용사회에서의 가름자 역할을 할 각종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기업정보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신용 경제사회와 고도 정보화 사회의 구현이 신용평가(주)의 기업목표라고 밝히는 이현제 사장(45세)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재정금융 심의관을 역임한 바 있는 행정관료 출신답게 매끄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



이 현제사장
한국신용평가(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보가 공짜이고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

아, 잘 조직되고 정리된 정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제고와 정보제공을 하고 있거나 할려는 업체들의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분야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공급자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사장은 아무런 확신없이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면 시장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2 금융권의 금융상품인 CP와 CMA 등에 투자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처리와 기타 대출 관

이터베이스화된 정보 가운데는 기업정보가 가장 많은데, 현재 8천여개 업체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정병건 차장은 “현재 데이터베이스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올해내로 2만여개 업체, 내년 말까지는 2만5천여 업체가 수록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는 92년 통신시장 개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시장선점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동사는 정보서비스 사업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신프로토콜 문제와 단말기 문제, 그리고 통신회선의 문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부족 등이 있다.

또한 외국의 유명DB업체들의 국내진출 노력도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동사는 1차적으로 지난 10월 초 CALL시장정보의 실시간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한바 있다.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사회의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주)에 모아지는 관심은 매우 크다 하겠다.

련정보의 체계적 검토 및 이용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신용평가(주)는 설립5년도 채 못된 현재 신뢰성 있고 정평있는 평가전문회사, 종합정보서비스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특별한 경영 방침이라든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초창기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이제야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분야에서는 국내최초로 설립된 업체답게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면서,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를 얻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사가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한정돼 있어 큰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정보화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신용평가(주)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기업정보제공업이 성행된 것은 불과 몇년전부터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의 신기술이나 제도의 도입, 보급속

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수년내로 정보이용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저희 회사의 경우 설립된지는 몇년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향후 몇년내로 혹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회사의 성공적인 발전을 확신하고 있는 이사장은 수요자들의 정보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외적요인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직원들의 확신부족이란 외적요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구성하는 직원들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신용평가(주)에서는 이러한 점을 짚어 인식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출퇴근 자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구애없

이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게 함으로써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어 회사의 입장에서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은 크게 신용평가사업, 정보사업, 출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신용평가사업.

그러나 결국에는 DB서비스사업, 즉 정보사업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현제사장은 전망한다.

“부가가치란 자본·노동·물자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생산조직이 아닌 저희와 같은 조직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이사장은 신용평가(주)의 기능이 정보화의 도래와 함께 더욱 돋보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